

“소외된 아이 없는 따뜻한 세상 만들겠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원정사 도계스님

13일 산타 할아버지 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파티 행사 21일 소외계층 아동에 선물 전달...봉사·기부 앞장 모범

“소외된 아이 없이 연말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산타 스님을 통해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 주택가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원정사에는 사회 약자와 어린이들의 행복하고 포근한 연말을 기원하는 스님이 있다.

끊임없는 봉사와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도계스님이 그 주인공.

도계스님은 ‘안아줄게 도담도담’ 프로젝트를 통해 매일 도움이 시급한 아이들을 선정, 물품을 지원하고 정서 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광주지역 피해아동 보호시설 1

0곳과 연계해 아동학대 피해를 받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사업이다.

‘안아줄게 도담도담’ 기금회는 오는 13일 오후 5시30분 광주 동구 지산동 베네치아에서 취약·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산타 할아버지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파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원정사와 자비신행회 주관으로 광주 대성초등학교 소외계층 아동 5명의 각 가정 방문해 산타스님을 통해 ‘뱃다의 선물’을 전달한다.

이날 도계스님, 자비신행회 관계자는 학교 교육복지사와 동행해 아동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고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기원할



예정이다.

선물은 종합과자선물세트와 핫팩세트 등 총 25만원 상당으로 구성됐다.

도계스님은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힘겨워 하는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있다”면서 “한 해를 마무리 하며 그늘진 곳의 아이들에게 작은 행복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연말연시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낼 수 있길 기원한다”면서 “작은 선물이지만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아줄게 도담도담’ 프로젝트는 지난달 11차 지원을 마쳤다. 이 기금은 아이들의 꿈과 소망에 초점을 맞춰 특색 있는 지원들을 하는게 특징이다.

11차 지원에는 동구지역 보육시설에서 생활 중인 8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장난감, 옷, 의식상품 등 아이들이 직접 고른 선물을 전달했고, 10차 지원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생활 중인 남매가 추석 연휴 때 아빠와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육수 바닷가 펜션을 1박2일 예약해 주기도 했다. 더불어 가족들의 즐거움 바비큐 파티를 위해 삼겹살 등 고기세트도 선물했다.

9차 지원은 남구 보육시설에서 생활 중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남매에게 워터파크 이용권과 레고 장난감을 전달했다. /오복기자



전남도립대-인재평생교육원 업무협약

전남도립대학교는 8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미래 인재 양성 및 도민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과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원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선 특화된 평생교육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재양성 분야 교육 및 지원사업 기획·이행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분야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상호 사업 참여 및 홍보 ▲정부 공모사업 등 유치 상호 지원 등이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남권 평생교육 컨트론타워 역할을 확립하고 2023년 교육부에서 확대 예정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등에 협력해 관련자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석규 인재평생교육원장은 “도립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레드포인트 업무협약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단장 최강남)은 최근 레드포인트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광주지원단 및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교육·교구·교재·문구 등 후원 지원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 및 사업 진행에 따른 상호 협력 ▲기타 협력 가능한 공동사업 수행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

최강남 단장은 “지역의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



회기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태성 레드포인트 대표는 “지역아동센터의 교육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전남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청렴연수’ 실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지난 7일 전남도교육연수원에서 기술직 공무원 178명 대상으로 ‘청렴연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기술직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청렴문화 확산 및 공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이날 청렴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에게 꼭 필요한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또한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 공감했으며, 판소리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추임새, 탄소 중립과 전라교육 등이 이어졌다.

김대중 교육감은 “청렴은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하지 않은 청렴은 한낱 헛구일 뿐이다”며 “이 자리에 계시는 기술직 공무원들부터 ‘청렴 전남 교육’을 내손으로 만든다는 각오로 청렴행정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재만기자

김원중 무안군의원 ‘최우수 기초의원상’ 수상

무안군의회 김원중 의원이 최근 광주 4·19혁명 기념관에서 열린 2022년 호남유권자연향 송년회·시상식에서 ‘최우수 기초의원상’을 수상했다.

호남유권자연향회는 올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사회·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에서는 김원중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4년 의정활동을 시작한 무안군의회 최다선(3선)인 김원중 의원은 탁월한 능력과 민주적 리더십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원중 의원은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수여된 상이라 생각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10만 군민과 언제나 함께하며 행복 무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안=김상호기자

동강대 작업치료과, 임곡요양원 인지 개선 봉사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어르신들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인지기능 개선에 힘썼다.

동강대 작업치료과는 최근 임곡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서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기능 평가인 ‘MOCA-K(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MOCA-K’는 경도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돼 다양한 인지영역을 평가한다.

동강대 작업치료과 학생들은 임곡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을 살펴보고 맞춤형 상담도 했다.

배원진 학과장은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을 정확히 진단해 필요한 부분을 조언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 작업치료과는 광주지역에서 유일



한 3년제 작업치료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 후 국가면허증인 작업치료사면허증과 감각발달재활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 등 보건소, 아동발달센터 등 특수교육기관, 공단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동강대 작업치료과는 오는 12월29일부터 2023학년도 정시신입생을 모집한다. /임재만기자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

담양군은 8일 “최근 개최한 ‘호남제주권 연구기관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전북, 제주, 광주·전남 등 30여명의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제주의 관광과 더불어 민선 8기 담양 관광의 발전 방향과 관광객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이날 담양을 방문한 연구원들을 대상으

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리플릿 배부 등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담양제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담양=정승균기자

목포소방서, 어린이 미래소방관 체험교육

목포소방서는 8일 “목포 동초등학교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소방관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직업 선택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역할 소개·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교육과 소방공무원 직업 체험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화재 시 대피 방법 ▲소화기 사용법 ▲어린이 방화복·헬멧 착용 ▲심폐소생술 이론·체험 교육 등이다.

박원국 목포소방서장은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추진을 통해 올바른 직



업 가치관을 세우고 자신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성기자



광주대 ‘GU 챌린지업 창업캠프’ 개최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광주대 LINC 3.0사업단은 최근 교내 창업 활성화와 재학생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GU 챌린지업 창업캠프(특허캠프)’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창업캠프는 창업동아리와 예비창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4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캠프 참여 학생들은 STEEP분석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특허 명세서의 항목별 작성 및 전자출원을 위한 문서작성을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까지 진행했다. /임재만기자



담양 창평면 ‘제4기 도시재생대학’ 운영

담양군은 8일 “최근 창평면사무소에서 2022년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 이야기 창평면 ‘제4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기 도시재생대학은 10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 강의, 마을관리 협동조합 특강, 선진지 견학, 주민 공모 사업 안내, 유튜브 기초교육 등으로 채워졌다.

수료식에서는 수료생들이 창평면의 도시 재생을 통한 각자의 소원을 담아 일곱 빛깔 우리 마을 지킴이 부엉이를 만들어 발표하고 회차별 교육 내용을 돌아보는 성과 공유회도 진행했다.

김태중 공간재생과장은 “9월 창평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해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주대 문헌정보학과 북큐레이션 행사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문헌정보학과가 호심기념도서관과 함께 오는 14일까지 학생들에게 도서를 추천하는 북큐레이션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북테라피:내 삶의 읽음, 책에 휴식하다’를 주제로 호심기념도서관 1층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북큐레이터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문헌정보학과 학생 21명이 직접 선정한 ▲다이어트 ▲마음여행 ▲일상 같은 국내 여행 ▲반려동물 ▲소설 원작 영화와 관련된 책들이 전시된다. /임재만기자

본사 손님

▲강순화 담양군 참여소통실 홍보팀장

결혼

●안근수(전 NH농협은행 지점장)·김덕자씨 아들 안근군, 박헌택(TG영무 회장)·정순영씨 딸 최현양=10일(토) 오후 1시 광주 웨딩홀 위더스 5층 열린다.

●노혜성(위키트리 소설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장)·조영숙씨 장남 홍재(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군, 이상수(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부장)·노영숙씨 장녀 주연양=11일(일) 오후 1시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